

[2020년 5월 띠앗 나눔 진행자용]

1. 성호경

2. 평화의 기도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3. 말씀 묵상 - 열 두 제자를 파견하시다(마르 6,6-9)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돌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끼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 말씀을 읽은 후 진행자는 청년들이 말씀내용을 묵상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잠시 주세요.

4. '부모와의 이별'에 대해 읽고 함께 나눠요.

1.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 구절은 무엇인가요?
2. 그 복음 구절에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3. 그 노력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앞의 4번 내용을 읽은 후 나눔 질문에 대해서 청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세요.

이후 청년들이 함께 나눔 질문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5. 활동하기

-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 구절이나 자신이 품고 싶은 말씀을 정해서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보기

6. 청년의 기도

- 뒷 장에 '청년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7. 성호경

청년의 기도

- 청년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세례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은총 속에 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는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께 매료되어
당신만을 섬기고 따르려고 모였으니
말씀과 성체로 저희를 충만케 하소서.
- 열정이 넘치되 조급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굳건한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는 지금의 소중함을 깨달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실현하려는 끈기를 주소서.
-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
신앙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과 쉬는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 그리하여 더 많은 청년이 교회로 모여 들어
함께 기도하고 활동함으로써
주님께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나날이 되게 하소서. 아멘.
- 교구 주보이신 묵주기도의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청년의 주보이신 성 알로이시오,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교구 청년연합회 주보이신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장 인준